승려 된 벤처기업가, 빈곤아동 퇴치 운동 나서

정토종 안양사 주지 마츠시마 스님 '독특 이력' 눈길

'사찰간식클럽'이란 협력단체를 만들어 빈곤아동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활동을 펼치는 스님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주인공은 일본 정토종 안양사(安養寺)의 주지인 마츠시마 세이로(松島靖朗) 스님이다.

마츠시마 스님의 활동은 빈곤퇴치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일본의 저명한 사회활동가이자 호세이(法政)대학 교수인 유아사 마코토(47) 씨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됐다. 구랍 27일 유아사 교수의 블로그 기사로 소개된 마츠시마 스님은 다소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절에서 태어난 마츠시마 스님은 애초에 스님이 되길 원치 않았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던 마츠시마 스님은 절의 주지였던 조부가 돌아가신 해, 뒤를 잇길 바랐던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IT 회사에 취업했다. 이후 벤처기업 사업가로 거듭나는 등 안정적인 사회인으로 정착하는 듯 했다.

하지만 마츠시마 스님은 어느 날 평범한 삶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됐다. IT 세계의 특성상 주변에는 독특하고 기발한 발상을 지닌 인재들로 가득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마츠시마 스님은 평범함이 아닌 나 자신만의 독특함과 독자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됐고, 그때 비로소 그토록 싫었던 승려로서의 삶이 다른 형태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일본 정토종 안양사(安養寺)의 주지 마츠시마 세이로(松島靖朗) 스님이 '사찰간식클럽'을 통해 아이들에게 나눠줄 공양물을 준비하고 있다.

절서 태어났지만 스님 되기 싫어
IT계 취업 후 벤처기업 사업가로
어느 날 평범함 삶에 회의감 생겨
고향 돌아와 출가… '불연' 활동

2013년 오사카 '母子 아사' 사건 후
빈곤층 아동에 공양 나누기 시작

고민 끝에 13년 동안의 사회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스님이 된 마츠시마 스님은 IT 업계에서의 경험을 살려 곧바로 사찰과 사람과의 인연을 잇는 활동 '불연(佛緣)'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함께 시작한 것이 '사찰간식클럽' 활동이었다.

'사찰간식클럽'은 지원 단체를 통해 결손가정 등 빈곤층 아동들에게 공양음식을 나눠주는 활동을 하는 모임이다.

마츠시마 스님이 이 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2013년 5월 24일 오사카시(大阪市)에서 일어난 모자아사사건을 알게된 후다. 오사카시에 있는 어느 주택에서 엄마와 아이가 시체로 발견된 이 사건은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었다'는 내용의 메모가 남겨진 것으로 보아 궁핍한 생활로 인해 아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집에는 냉장고가 없고, 전기와 가스도 끊겼을 뿐만 아니라 동전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이런 비참한 사건을 접하게 된 스님은 주변 사찰의 도움과 민간 지원단체의 협력을 받아 '사찰간식클럽'을 결성하게 됐다.

"부처님은 그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인터뷰 도중 마츠시마 스님은 이 부분에 힘주어 말했다. 스님은 '사찰간식클럽' 활동이 '본래 사찰 모습 되찾기 운동'의 일환이었다고 전하며, 불교의 전파와 자비 실천이란 승려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범한지 3년째인 '사찰간식클럽'은 현재 후원 단체만 150여개를 넘어섰고, 500여 사찰이 협력하고 있다.

점차 이름을 알려가고 있는 '사찰간식클럽'은 단체를 통해서가 아닌 빈곤 가정이 물자를 직접 요청하는 긴급연락도 늘어가고 있다. 이는 여러 단체에서 아직 파악하지 못한 빈곤 가정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 문제에 대해 마츠시마 스님은 행정력을 보다 강화해 한 사람이라도 더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통계에 의하면 아이들 6명 중 1명이 빈곤상태에 있는 반면, 연간 600만 톤의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스님은 사찰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일깨울 수만 있다면 '사찰간식클럽' 이상의 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일본에는 7만5,000여 사찰이 있고 이 거대한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어린이 빈곤 문제는 물론 지역 사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성원 객원기자

'공주 성' 속 대만 스님들, 방문객에 몸살

SNS통해 입소문 퍼져… '수행 방해 · 안전관리 미흡' 등 경고



대만 북서부 신주현(新竹縣) 관서군(關西郡) 동산구에 인적이 끊긴 놀이공원은 10여 년 동안 임제종 수도승들의 주석처로 사용됐으나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출처=wohoho.pl

대만의 한 버려진 놀이공원서 주석하던 수행승들이 갑자기 밀려든 관광객에 난색을 표했다.

영자 신문 'TAIPEI TIMES'는 12월 28일(현지시간) 보도서 "대만 북서부 신주현(新竹縣) 관서군(關西郡) 동산구에 인적이 끊긴 놀이공원이 10여 년 동안 임제종 수도승들의 주석처로 사용된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며 호기심에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급증했다"며 "수도승들은 안전과 수행환경 방해를 이유로 방문 자제를 요청하며 나섰다"고 전했다.

한 네티즌이 찍은 해당 놀이공원 전경은 홍콩 디즈니랜드의 '잠자는 숲속의 공주 성'과 비슷한 생김새를 해 SNS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동산구 공무원 쵸우 팅첸 씨에 따르면 '부처님 세상'으로 불린 이 놀이공원은 40여 년 전 '동화 세상'이란 이름으로 개장한 놀이공원이다. 공원은 한때 대만의 대표적 놀이공원 '육복촌(六福村, Leofoo Village theme park)'에 버금가는 아름다움을 자랑했지만 10여 년 전 정부의 상수원관리 명령에 강제로 문을 닫았다.

쵸우 관리원은 "폐장 이후부터 10년 넘게 수도승 공동체가 이곳을 수도 서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수도승 공동체 주석 이후 이곳은 한 군데도 증축이나 개 · 보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공주 성을 비롯한 놀이공원 건물은 벽에서 타일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천장서 나무가 자라는 등 궤붕될 위험이 있어 오직 재활용품 보관 장소로만 쓰인다. 그러나 수도승들은 "빌딩 수리나 물이 새는 건물에 회벽을 바를 계획이 전혀 없다. 모든 건물은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놔둘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수도승은 "우리 수행승들은 10여년 넘게 놀이공원을 사찰 대신으로 삼아 은둔수행 해왔다. 조용한 수행환경이 방문객들의 침입 때문에 방해받지 않길 바란다"며 "수행처는 이미 황폐화로 쓰레기장과 다름없다. 정면에서 잘 나온 사진 몇 장만 보고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개인 기분 따라 명상법 제시하는 앱 개발 '눈길'

아우라헬스, 사용자 데이터 분석 후 맞춤형 명상법 제공
앱 실행 후 기분상태 물어 그래프로… 200가지 방법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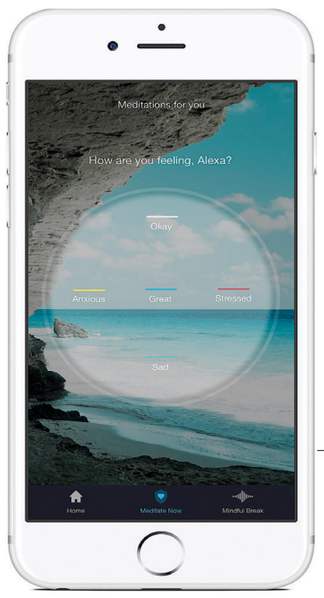
가만히 앉아 명상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앱이 개발돼 눈길을 끈다.

헬스케어 · 건강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아우라 헬스(Aura Heath)'는 사용자의 기분에 따라 맞춤형 명상을 진행하는 명상앱 '아우라(Aura)'를 개발했다.

아우라는 사용자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행복하거나, 슬플 때 등 기분을 파악해 그에 맞는 명상을 진행한다.

아우라 헬스 CEO 스티브 리는 "기존의 명상 앱들은 적어도 명상적인 명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아우라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앱을 사용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통계자료와 연령별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상을 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재단 설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는 사용자들이 명상을 하면서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덧붙였다.



헬스케어, 건강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아우라 헬스(Aura Heath)'는 사용자의 기분에 따라 맞춤형 명상을 진행하는 명상앱 '아우라(Aura)'를 개발했다. 사진출처=techcrunch.com

'아우라'는 애플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앱을 실행하면 사용자의 기분(분노, 좋음, 매우좋음, 스트레스, 슬픔)을 물으며, 마음챙김을 얼마나 잘 실행하고 있는지 수치화해서 그래프로 보여준다. 약 200여 가지 명상법을 제공하고 있다.

아우라 헬스 설립자인 다니엘 리는 "우리 회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을 위해 모든 세션을 개인에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미얀마의 '쿠르디 참사' 미얀마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의 남자 아이가 강변 진흙탕에 숨진 채 얼굴을 묻고 있다. 생후 16개월의 아 아이는 모하메드 소하엣〈사진 왼쪽〉. 미얀마 군인의 공격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도피하던 중, 배가 침몰하며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정부군은 지난해 10월 미얀마 국경수비대원 9명이 살해된 사건에 대해 로힝야족을 배후로 간주하고, 로힝야족을 학살 및 토벌하는 이른바 '인공청소'에 나섰다. 이에 소하엣 가족을 비롯한 4만여 로힝야족은 방글라데시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2년 전 터키 해안서 숨진 채 발견된 시리아 난민 아이 에일란 쿠르디(당시 3세 • 사진 오른쪽)를 떠올리게 하며 더 큰 슬픔을 주고 있다. 사진출처=The Indian Express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미소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